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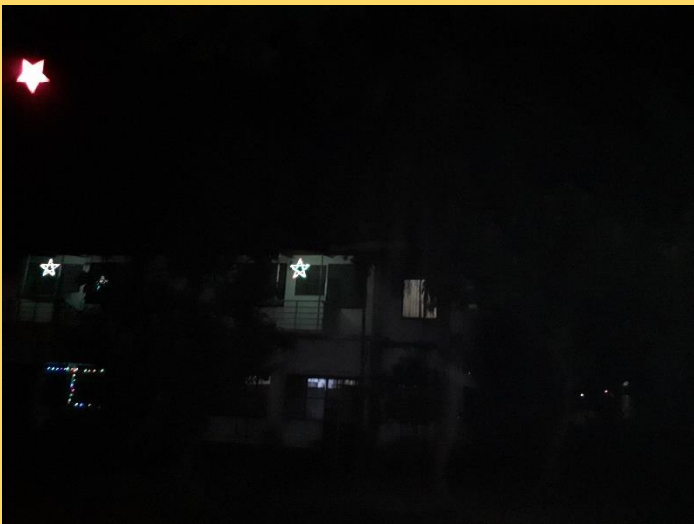
신창은 신태희 방국소식 2 호

2019 년 12 월 22 일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모든것이 낯설고 새로와서 낯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요즘, 저희 집 앞에달아놓은 반짝이는 별과, 병원내 건물들 마다 장대 높이 달려있는 커다란 빨간 별을 보지 않으면 성탄이 바로 며칠뒤 라는 사실을 자꾸 깜빡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생을 월요일에서 금요일 혹은 토요일의 스케줄로 살다가 갑자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스케줄로 바뀌고 보니 자꾸 낯짜나 요일을

혼동하곤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 된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월요일이라니! 하며 놀라곤 하는 거지요.

지난번 감격에 겨운 편지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다카로 내려가서 4 주간의 아주 짧은 언어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문법을 이해(만)하고 읽고 쓰는 것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해하는 문장이 입이나 귀까지 연결되는 되는데는 아직도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팩트를 매일 절감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아도 병원의 급한 사정상 신창은 형제는 올라 온 바로 다음 날 부터 일을 시작했고, 신태희는 치과 병원공사, 치과 장비구매, 진료 수가 결정, 현지 의사 고용에 관한 문제 등등을 가지고 병원과 계속 상의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긴 했지만 그 "일"이라는 것이 겸손과 인내, 그러나 동시에 단호함과 결단력이 필요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어서 매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시고 리더 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중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제법 사이즈가 큰 선교 병원의 일반적인 모습인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구조와 그에 따른 엄청나게 많은 회의 때문에 한 스텝을 진전 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요! ^^ 또한 관행적으로 있어온 커미션 (구매부서의 사람들이 구입처와 담합해

돈을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한 듯 존재하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때문에 구매부서에서 받아 온 quotation 의 가격이 방글라데시에 온 지 한 두달 밖에 안된 저희가 알아본 가격보다 적게는 1.5 배에서 많게는 3 배 가까이 높은 걸 발견하고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저희가 어떻게 이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매일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히 올해 말이면 대부분의 일이 마무리 되고 내년 1 월 쯤엔 치과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이제는 3-4 월 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필요한 장비를 금방이라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생각은 이제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 어쨌든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추어 아버지께서 일을 진행시키실 것을 믿고 저희 시간표에 맞추려 안달하는 마음을 내려 놓고 나니 맘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며칠전 LAMB Project 스태프 전체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 하나가 Nativity 연극이었는데 의상이며 연기며 더없이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굿간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에 직접 양 몇 마리를 출연시키며 사실감을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수정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연극이 아주 유명했는데 날아다니는 천사와 함께 무대에 출연한 실제 동물들이 유명세의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방글라데시 작은 마을에서 다시 한번 실제 동물이 출연하는 스펙타클한 연극을 보는 기쁨을 누린거지요! 사실 그 양들은 환자들의 혈액내 세균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키우는 양입니다. 병원 lab 을 위해서 열심히 혈액을 제공하며 수고하다 잠시 짬을 내 연극까지 출연해준 양들에게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신태희는 최근에 한국의 후배가 보내준 나빌 쿠레쉬 라는 분이 쓰신 책 두권을 읽었습니다. 헌신적인 무슬림이었던 저자가 어떻게 길고도 진지한 진리 탐구의 과정 가운데 -물론 이슬람을 변호하고 기독교의 모순을 밝히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요- 결국 참 하나님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게 되었는지의 여정이 담긴 책입니다. 읽는 내내 그토록 진지하고 치열한 구도의 길, 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형제의 절박하기까지한 태도가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죄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때로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듯 여기는 진리를 위해서 그 형제가 포기해야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특pecially 제일 앞 페이지의 "이 책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에 쓰여진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셔서 부모님과 제가 다시 한번 가족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란 구절에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역적 사회적 공동체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더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저희 병원내 학교에서 일하던 자매의 아버지가 아주 위독하셔서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으시는 중인데 그 자매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버지의 심한 핍박 가운데 엄마는 이혼을 당했고 자녀들도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를 돌보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입니다. 7년전 인도에서 처음 맛았던 성탄이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캐롤도 없었지만 맨처음 스코지에서 보내는 성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새로운 땅, 방글라데시에서 맞게되는 올해의 성탄은 또 다른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지난 성탄 행사 때 저희 단체 리더자매가 나눈 말씀 중 ○수님의 피부색이 자신처럼 흰색이 아니라 (자매는 미국국적의 백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검은 빛을 띤 분이였다는 설교를 검은 피부빛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들으니 왠지

○수님의 탄생이 더 가깝고 눈에 그리듯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지난 일년, 저희의 기쁨이나 성취뿐 아니라 고민과 좌절과 혼란의 시간들 까지도 묵묵히 기도가운데 지켜 보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한분 한분을 떠올리면 웬은혜가 웬 복인가..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결코 그냥 빈 말이 아닙니다. 스코지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가, 정말 아버지의 뜻이 맞는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할 때 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새로운 모든 것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기만 할 때 여러분들의 격려가 저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동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저희와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오신 ○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성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첫째도 언어, 둘째도 언어, 셋째도 언어! 언어 공부에 더 맘과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2. 첫째도 관계, 둘째도 관계, 셋째도 관계! 병원의 모든 분들, 현지분들이나 다른 스코사님들 모든 분들을 깊이

존경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3. 치과를 셋업하는 과정 - 공사, 장비구입, 치과의사및 직원고용, 등등- 에서 주님의 선한 손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4. 인도보다 훨씬 가난한 환자 분포를 보이는 병원에서, 특별히 내과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5. 병원의 잘못된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내 감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께 여쭙고 반응하는 훈련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사진설명

1. 연극에 출연했던 양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병원 풀밭에서 풀을 뜯다 종종 혈액을 제공하곤 합니다.



2. 매해 성탄마다 이렇게 건물위에 장대에 별을 달아 장식한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오듯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별이 보이면 병원에 다 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약국과 가난한 환자 보조 창구로 쓰이고 있는 이곳이 곧 치과로 거듭날 공간입니다!



4. 선후배들이 이곳에 오는 분 편에 보내준 치과 기구들과 제가 말씀드린 책입니다. 아직은 언제 쓰일지 몰라 가끔씩 충전해 놓거나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